

2023년 의회사무처 직원 국외연수 계획 - 식문화 및 전통문화유산 활용 관광자원화 방안

1 연수개요

○ 연수목적

- 동유럽 고유의 식문화를 활용한 관광상품화(지역의 카페·음식점의 고유성 유지, 홍보마케팅 전략 등)한 사례를 비교 견학
 - 전통 건축물 등의 경관 보전 정책 및 문화유산 보존 관리 활용한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
- ⇒ 전라북도만의 고유의 식문화를 개발하고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 관리를 통해 관광자원화하여 국내외 관광객유치 및 관광활성화

○ 기 간 : 2023. 04. 20(목) ~ 04. 28(금) / 7박 9일

○ 연 수 국 : 오스트리아(빈, 할슈타트, 잘츠부르크), 체코(체스키크롬로프, 프라하), 헝가리(부다페스트)

○ 방문기관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유네스코 위원회, 패밀리 큐르펠트사
- (체코) 프라하 관광청, 스트라호프 수도원 양조장
- (헝가리) 그레이트 마케홀 상인회

○ 인 원 : 10명(총무 3명, 의사·입법·운영·예결 각 1명, 전문위원실 3명)

- 총무담당실 곽효승(지방서기관) 외 9명 * 대상자 명단 『붙임1』 참조

○ 소요예산 : 44,618천원(예산지원 30,000천원+자부담 14,618천원)

- 4,461,820원(숙박비+식비+일비+항공료+준비금)×10명 = 44,618,200원

※ 국외여비 지급기준에 의해 산정 【(나), (다)등급 지역】

\$=1,298.00원 기준(2023.03.30. 환율) ⇒ 세부산출내역은 『붙임2』 참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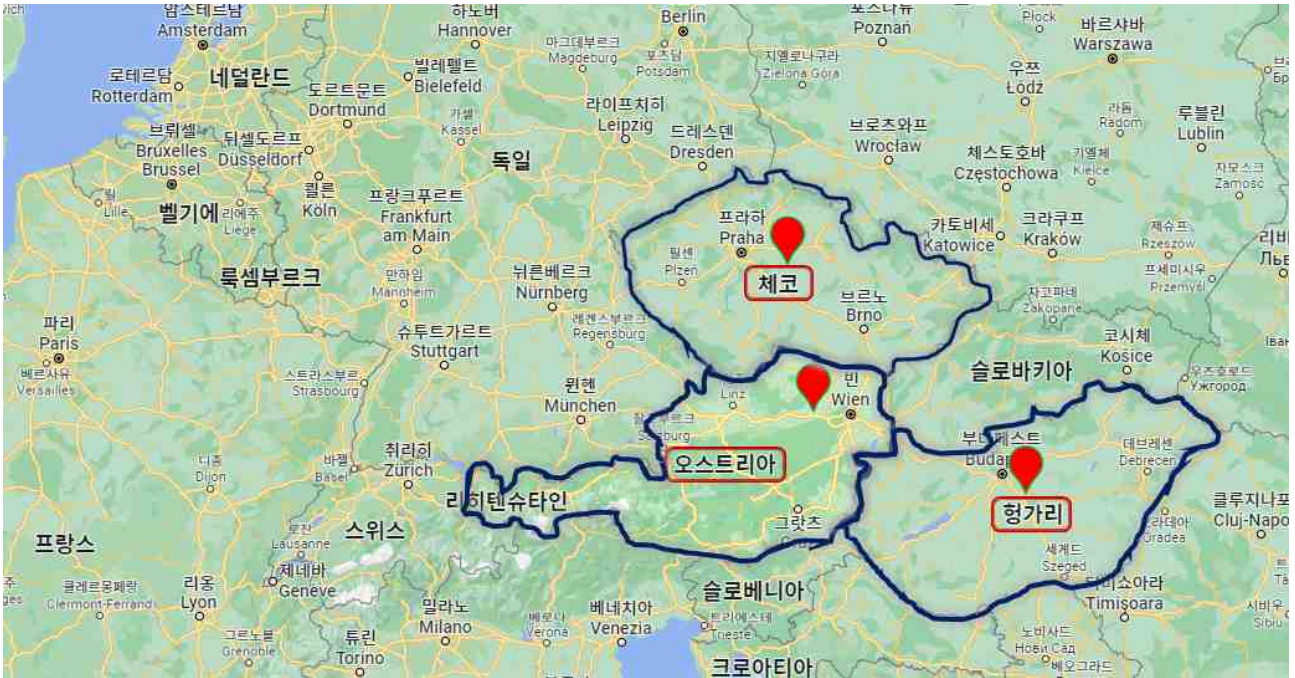
연수일정

일 자	지역	시간	세부일정
1일차 (4.20)	전 주	02:00	· 전주 출발
	인 천	08:15	· 인천국제공항 출발
	헝가리	13:50	· 부다페스트 BUD 도착
	부다페스트	15:00	· 성이스트반 대성당 방문 - 고건축물 보전관리 및 관광활용 사례 답사
		18:00	· 헝가리 전통음식 체험
2일차 (4.21)	부다페스트	08:00	·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동
	오스트리아 빈	12:00	· 비엔나 전통음식 체험, 케른트너 거리, 벨베데레궁 등 방문 · <u>오스트리아 유네스코 위원회 방문</u>
3일차 (4.22)	빈	10:00	· 비엔나 커피하우스 문화체험
		15:00	· <u>패밀리 퀘르펠트社 방문</u> · 잘츠부르크로 이동
4일차 (4.23)	할슈타트	10:00	· 할슈타트 마을 방문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시 보전관리사례
	잘츠부르크	15:00	· 게트라이드 가세 방문 - 전통경관 및 고건축 활용 관광마케팅 사례
5일차 (4.24)	잘츠부르크 체코 (체스키크롬 로프)	10:00	· 체코 체스키크롬로프로 이동
		12:00	· 체코 전통음식 체험 - 중세도시 라트란 거리 방문 및 음식관광체험
		16:00	· 프라하로 이동
6일차 (4.25)	프라하	10:00	· <u>스트라호프 수도원 양조장 방문</u> - 고건축활용 전통수제맥주양조장 현장
		15:00	· <u>프라하 관광청 방문</u>
7일차 (4.26)	프라하 헝가리 (부다페스트)	10:00	·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이동
		15:00	· 뉴욕 카페 부다페스트 방문 - 고건축활용 카페 관광상품화 사례 답사
8일차 (4.27)	부다페스트	10:00	· <u>그레이트 마켓홀 시장 상인회 방문</u>
		15:55	· 부다페스트 BUD 출발
9일차 (4.28)	인 천	09:30	· 인천국제공항 도착
	전 주	15:00	· 전주 도착

※ 연수일자 및 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방문처)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3

방문국가 및 방문지 현황



<오스트리아>

□ 일반현황

- 언어 : 독일어 / 면적 : 약 838만ha(세계 116위)
- 수도 : 빈 / 인구 : 약 895만명(세계 99위) / 화폐단위 : 유로
- GDP : 4,770억 8,247만 달러(세계 30위) / 1인당 국내총생산 5만 3,267달러(세계13위)
- 종교 : 가톨릭 64%, 개신교 5%, 이슬람교 8%
- 인물 : 지그문트 프로이트, 콘라트 로렌츠, 모차르트, 구스타프 클림트
- 특징 : 오스트리아는 독일의 남동쪽, 정확하게는 독일 바이에른주의 동남쪽에 위치한 나라로 중부유럽에 있는 국가이자 서유럽에도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국가로 과거 신성로마제국 합스부르크 왕가 문화가 고스란히 존재함

□ 주요 방문지 현황

○ 빈 | 비엔나 커피하우스

- 30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커피하우스(Kaffeehaus)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명소임. 빈에는 19세기 말의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한 커피하우

스가 150여 곳에 달함.

- 비엔나 커피하우스는 2011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는데, 등재이유는 비엔나 커피하우스만의 독특한 문화 때문임.
- 카페의 특징으로는 비엔나의 오래된 중세시대 건축물 내외부(외관 및 인테리어)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공간이 주는 특별한 분위기와 우아함을 커피 한 잔을 구매함으로써 하루종일 즐길 수 있다는 점임.
- 비엔나 사람들은 흔히 커피하우스를 ‘도시의 공공 거실(THE CITY’S PUBLIC LIVING ROOMS)’ 이라고 표현하며, 전형적인 빈 사람들의 모임 장소로 사용되고 있음.

☞ 대표 비엔나 커피하우스

카페 센트럴(CAFE CENTRAL)

센트럴은 1876년에 오픈, 14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 히틀러, 프로이트, 알덴베르크, 클림트 등 많은 유명인들이 방문한 곳으로 유명,(아펠슈트루델(애플파이))

카페 자허(CAFE SACHER)

빈 오페라하우스 바로 뒤, 시내 중심지에 위치한 카페 자허는 1873년 문을 연 곳, 호텔 자허와 동일한 건물 1층에 위치(자허 토르테 원조, 비엔나 커피와 함께)

카페 데멜(CAFE DEMEL)

데멜은 1786년에 오픈, 230년이 넘는 역사, 합스부르크 시대에 황실에 케이크를 납품한 곳으로 유명, 오랜 시간 철학자와 부르주아를 위한 모임 장소로 활용, 직접 빵을 제조하는 모습 관람 가능(안나토르테, 오스트리아 전통 케이크)

카페 뮤지엄(cafe museum)

건축가 아돌프 로스(1870-1933, 근대를 이끈 세계적인 건축가)가 인테리어한 곳
국립오페라 극장 건너편, 구스타프 클림트와 에곤실레가 처음 만난 곳

- ◆◆ 비엔나 커피하우스는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주요 관광 코스이자 카페에서 판매하는 멜랑쥬(일명 비엔나커피)와 아인슈페너, 마리아테레사 등 비엔나 고유 커피와 전통 디저트를 맛보는 “카페투어 관광상품”으로 활용되고 있어 전북지역의 커피, 전통차, 과자 등의 지역 고유의 음료와 디저트를 활용, 지역문화와 건축물 등 특별한 공간과 결합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전북의 특징적인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됨.

○ 잘츠부르크 | 게트라이드 가세 (Getreidegasse)

- 게트라이드 가세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쇼핑거리로 알려져 있는데, 고풍스런 중세 건물에 철제로 만든 수공의 아름다운 간판들 때문임. 중세 유럽의 상점들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그 모양으로 업종을 알 수 있게 간판을 만들어 달았다고 함.
- 게트라이드 가세는 이런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이 거리의 간판들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예술작품이라 할만함. 현재까지도 국가의 허가없이 간판을 함부로 설치하거나 철거할 수 없게 하여 유지관리 중임.
- 이 거리에는 모차르트 생가가 있어 모차르트 초코렛, 모차르트 이용 카페 등 관련 먹거리를 판매하는 상점들이 있음.

◆◆ 유명인 생가 보전 및 인근에 관련 콘텐츠를 활용한 먹거리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점 등 역사와 전통, 고유성을 간직하고 있는 전북지역에 게트라이드 가세의 건축물, 간판, 스트리트퍼니처 등을 활용한 “고유 경관의 유지·관리·활용방안”을 벤치마킹하여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방문기관 I | 오스트리아 유네스코 위원회

- 세계유산목록 등재 12건, 잠정목록 10건 등 다양한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발굴, 관리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유네스코 부의장국으로 활동 중인 오스트리아 유네스코 위원회의 다양한 활동 현황 청취
- 위치 : Universitätsstrasse 5/4. Stock/12 1010 Vienna
- 미팅담당자 : Mag. Claudia Isep 사무처장
- 연락처 : 이메일(isep@unesco.at), 홈페이지(<https://www.unesco.at>)
- 질문내용
 - 1) 오스트리아 유네스코 지정·관리 및 발굴 정책 관련
 - 2) 오스트리아 전통건축물과 경관지구 등에 대한 관리·활용 현황
 - 3) 오스트리아 식문화 등 전통문화유산의 전통유지관리 정책(규제 또는 장려 정책)

○ 방문기관 II | 패밀리 퀘르펠트社(Family Querfeld)

- 3대에 걸쳐 카페 뮤지엄, 카페 란트만 등 비엔나의 전통있는 커피하우스 및 레스토랑 11개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35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현재의 비엔나 커피하우스 문화의 전통을 창조, 계승하고 있음
- 위치 : Querfelds Wiener Kaffeehaus GmbH Universitätsring 4 1010 Wien
- 미팅담당자 : KAROLINE KLEZL 매니저(모짜르트카페 CEO)
- 연락처 : 이메일(cafe@landtmann.at), 홈페이지(<https://www.cafe-wien.at>)
- 질문내용
 - 1) 비엔나 커피하우스 문화의 역사와 계승 현황
 - 2) 비엔나 커피하우스의 관리운영 방식
 - 3) 비엔나 카페 간 협력방식(네트워크 등)
 - 4) 비엔나 식문화 및 음식관광업, 식음료 산업 관련한 퀘르펠트사의 다양한 활동(성과) 현황 등

<체코>

□ 일반현황

- 언어 : 체코어 / 면적 : 약 788만ha(세계 118위)
- 수도 : 프라하 / 인구 : 약 1,049만명(세계 88위) / 화폐단위 : 체코 코루나
- GDP : 2,823억 4,085만 달러(세계 46위) / 1인당 국내총생산 2만 6,378달러(세계33위)
- 종교 : 무교(34.5%), 가톨릭(10.4%), 개신교(1.1%), 기타(54%)
- 인물 : 드보르자크, 스메타나, 프란츠카프카, 밀란쿤데라
- 특징 : 1968년 1월 공산당 제1서기로 선출된 덩체크(Alexander Dubček) 주도의 개혁파가 ‘프라하의 봄’ 개혁운동을 추진했으나, 사회주의 블록의 결속을 내세우던 소련을 포함한 바르샤바조약기구의 군사침공으로 좌절. 1993년 1월 1일을 기해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 체코에는 수도인 프라하 역사지구를 비롯해 모두 12개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

□ 주요 방문지 현황

- 프라하 | 스트라호프 수도원 양조장

- 체코는 유럽에서 독일과 함께 라거 맥주를 생산하는 맥주 강대국으로 꼽히면서 최초의 필스너가 탄생한 국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버드와이저의 원산지이기도 함.
- 체코는 1인당 맥주 소비량 세계 1위 국가(24년 연속)로 EU에서 7번째로 큰 맥주 생산지이자 2017년 기준 2억 7천 390만 달러 수출, 1.9% 점유율로 세계 10위 차지하고 있음.
- 체코맥주업계 종사자는 약 55,000여 명, 브루어리는 소형과 대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체코 맥주 산업 고용의 특성을 보면 Breweries의 경우, 대부분 직접적인 고용을 통해 약 7,600여 명의 종사자를 두고 있음. Suppliers와 Horeca&Retail 분야는 간접적인 고용을 통해 각각 12,500여 명, 34,600여 명의 종사자를 둬.
- 프라하 양조장 투어 : 유명한 필스너 우르켈 양조장 말고도 코젤 양조장, 스타로프라멘 양조장, 부데요비츠키 부드바르 양조장 등 여러 맥주 공장들 역시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 중임.
- 스트라호프 수도원의 양조 역사는 중세시대를 거슬러 600년 이상을 자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수도원 양조장에서 제조한 다양한 수제 맥주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임.

◆◆ 프라하 양조장 투어는 전통주의 고장이자 주류유통량이 높은 전북 지역의 수제맥주산업 육성 및 수제맥주를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참고할 수 있는 사례임.

☞ 전라북도 수제맥주 관련 현황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곰표·강서맥주 등 수제맥주 대표기업 **세븐브로이맥주(주)**, 230억 투자 확정(MOU 및 분양계약 체결)하고 현재 진행 중

군산 비어포트(맥주양조장)

군산보리로 만든 군산 수제맥주(국내 유일의 국산 맥아(흰찰쌀보리) 사용) 양조장 및 판매장으로 꾀보선창자리에 있던 옛 동부어판장 건물을 리모델링(구조보강)하여 조성·운영 중

남원 수제맥주 ‘비즌’

청년들이 만든 남원 프리미엄 수제맥주, 남원시민협동조합 비즌에서 정미소를 개조한 양조장 운영 맥주 제조·판매, 남원시 농협하나로마트 및 지역음식점에 유통 중

○ 방문기관 III | 프라하 관광청 Prague City Tourism

- 프라하시가 설립한 주식회사로 프라하 관광안내 홈페이지 운영, 관광안내소 운영, 가이드 및 투어 제공, 프라하 비지터 패스 발급운영, 관광객 통계 및 분석 등 다양한 관광업무 공식전담운영기관
- 위치 : Žatecká 110/2, 110 00 Praha 1 - Staré Město
- 미팅담당자 : 야로슬라바 노바코바 박사(전문컨설턴트)
- 연락처: 이메일(j.novakova@prague.eu), 홈페이지(<https://www.praguecitytourism.cz>)
- 질문내용
 - 1) 지역전통음식 및 음식점 홍보 안내 방식(레스토랑별 별점평가방식 등)
 - 2) 프라하지역 음식관광 및 식문화 관광객 현황 등

<헝가리>

□ 일반현황

- 언어 : 헝가리어 / 면적 : 약 930만ha(세계 118위)
- 수도 : 부다페스트 / 인구 : 약 1,015만명(세계 110위) / 화폐단위 : 헝가리 포린트
- GDP : 1,822억 8,052만 달러(세계 54위) / 1인당 국내총생산 1만 8,772.67달러(세계41위)
- 종교 : 카톨릭(37.2%), 개신교(13.8%), 그리스정교(1.8%)
- 인물 : 페렌츠 푸스카스, 로버트 카파, 조지 셀, 라홀로 모호이너지,
- 특징 : 헝가리는 다민족국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역사적으로 동서양의 다양한 음식이 조화를 이룸. 수도 부다페스트는 13세기 후반에 건설된 부다왕궁과 헝가리국립박물관, 세체니 다리, 에스테르곰 대성당(Esztergom Basilica) 등과 약 100여 개의 온천이 있음.

□ 주요 방문지 현황

○ 부다페스트 | 뉴욕카페 부다페스트

- 뉴욕카페는 1894년 미국에 본사를 둔 뉴욕보험회사 헝가리 지사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한 건물로 당시 부다페스트에만 500개가 넘는 커피하우스가 있었고, 건물 1층에 뉴욕카페가 자리함. 다양한 조각품과 샹들리에, 원형기둥, 바로크양식의 아치 등 최고급 자재를 이용한 화려한 내외부장식이 특징으로 현재까지도 당시의 모습을 보전하고 있음.

○ 부다페스트 | 그레이트 마켓홀 (Nagy Vásárcsarnok)

- 1977년에 국가기념물로 지정된 이 건물은 헝가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벽돌 건축물 중 하나로 손꼽히는 그레이트 마켓 홀은 1897년에 지어진 부다페스트에 남아있는 가장 큰 재래시장

◆◆ 과거 건축물을 완전히 허물지 않고 원형을 유지한 채 현재의 기능을 더해 독특한 지역문화와 지역분위기를 창출함으로써 지역특색을 만들어 내 이것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사례로, 전북지역의 오래된 건축물을 원형상태로 유지보수하여 현재의 수요에 맞는 기능을 입힌다면 다른 지역에 없는 전북만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현재까지 추진사항

① 주제 및 방문지 선정 회의 개최

- 기 간 : '23. 3. 2. ~ 3. 24. (3회)
- 회의내용
 - 전북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북을 대표하는 '먹거리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례조사
 - 노후 건축물 또는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 사례조사
 - 동유럽 국가의 관광정책, 역사문화적 특징, 관광객 동향 등 파악

② 방문지 관련 자료수집

- 기 간 : '23. 3. 2. ~ 3. 24.
- 대 상 :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의 식문화의 특징과 음식활용 관광 패키지상품, 동유럽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각국별 대표음식 및 음식점 홍보안내방법 등

- 방 법 : 국가별 관광청 자료 검색, 관련 칼럼 및 연구자료 검토, 관련 서적 및 타 기관 연수보고서 등 참고

3 주제 및 방문지 선정에 따른 전문가 의견수렴

- 일 시 : '23. 3. 28(화)
- 장 소 : 전북연구원
- 전 문 가 : 전북연구원 장세길 연구위원
- 주요내용 : 동유럽의 고전문화유산(식문화를 중심으로) 활용사례를 통해 전북 도정과 접목할 수 있는 우수사례 소개
- 자문결과
 - 동유럽의 경우 19세기 중세시대 건축공간과 당시의 식문화가 고스란히 현대까지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특이성을 가지며, 그 주요 요인으로 도시계획부터 건축물 신축, 인테리어는 물론 간판, 가로등 등 거리구조물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지방정부가 개입하여 옛 경관을 유지하도록 하고, 유네스코 지정 추진 등으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과거의 지역유산을 유지·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있었음.
 - 또한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즉 지역 고유문화를 존중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정체성 및 자부심 등이 현재의 동유럽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었으며, 이는 과거의 화려하고 풍부했던 역사를 잊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 지역의 특색이 되고 관광자원이 되었음.
 - 특히 동유럽의 식문화의 경우, 전북지역 역시 국내 여러 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한국의 고대,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문화에 대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이를 접목하여 관광자원화하고 관광상품으로 육성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한옥, 근대건축물 등을 활용하여 고유의 독특한 공간을 만들어 내고 판소리, 미디어아트 등 지역의 역사문화콘텐츠가 함께 어우러져 말 그대로 식'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복합음식문화도시를 조성, 제2의 전북관광 활성화를 위해 동유럽 벤치마킹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5

금후계획

① 항공권 및 호텔예약

- 항공권 : 곽효승 외 9명(인천 → 헝가리 → 인천)
- 호텔 : 미 정

②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의

- 일시 : '23. 4월중(예정)
- 장소 : 도의회 처장실

③ 국외연수 방문기관 협조요청 공문 발송

- 일자 : '23. 3 ~ 4월중
- 주요내용 : 방문기관 사전 협의 등

④ 국외연수 실시

- 기간 : '23. 4. 20(목) ~ 4. 28(금) / 7박 9일
- 연수국 : 3개국 【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

⑤ 결과보고서 작성 및 홈페이지 게재

- 기한 : '23. 5. 28일한(귀국 후 30일내 보고서 작성)

⑥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결과보고

- 기한 : '23. 6. 1일한
- 내용 : 국외연수 결과보고 및 집행부 대안제시

6

기대효과

- (식문화산업 육성) 동유럽 3개국의 식문화 활용 관련 산업 육성 및 관광상품화 벤치마킹으로 전라북도 식문화산업 관련 신산업 육성 및 관광정책 적용
- (문화유산 보존) 전라북도 전통 건축물들을 문화유산으로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이를 관광자원화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지속적인 보존 및 동시에 지역 경제활성화 기대
- (세계문화유산 발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지정 및 관리실태를 견학하고, 전북 도내 시군별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인 관리·활용방안 모색을 통한 세계문화유산 발굴 및 등재

붙임 1**전라북도의회 사무처직원 국외연수 대상자**

□ 총 인원 : 10명 (총무 3, 의사 1, 입법 1, 운영 1, 예결 1, 상임위 3)

연번	부서명	직 급	성 명	비 고
1	총무담당관	행정4급	곽 효 승	연수단장
2	"	행정5급	한 동 철	
3	"	행정6급(임기제)	은 수 정	
4	의사담당관	행정5급	최 율 하	
5	입법정책담당관	사서6급	양 지 속	
6	운영수석전문위원	행정6급	김 영 수	
7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행정5급	임 선 영	
8	농산업경제전문위원	행정6급(임기제)	형 영 주	
9	문화건설안전전문위원	행정6급(임기제)	변 혜 진	
10	교육전문위원	행정6급(임기제)	소 민 섭	
소계	10명	남5, 여5		

* 대상인원과 배정인원, 전입일, 부서별 안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함

□ **연수개요**

- 연수기간 : 2023. 4. 20(목) ~ 4. 28(금) / 7박 9일
- 연수지역 : 3개국 【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
- 연수인원 : 10명

□ **소요예산**(국외여비 지급기준)

- 소요예산액 : 44,618천원(예산지원 30,000천원/자부담 14,618천원)
- 세부산출내역 : 4,461,820원 × 10명 = 44,618,200원

구분	산출내역	비고
소계	4,461,826	원단위 절사
일비	· 30 \$ × 8일 × 1인 × 1,305원 = 311,520원	2023. 3. 30일자 환율(1 \$ → 1,298원)
숙박비	나) 급지 · 116 \$ × 5박 × 1인 × 1,305원 = 752,840원	할인정액 (실비상한액의 85%)
	다) 급지 · 90 \$ × 2박 × 1인 × 1,305원 = 233,640원	
식비	나) 급지 · 59 \$ × 6일 × 1인 × 1,305원 = 459,492원	
	다) 급지 · 44 \$ × 2일 × 1인 × 1,305원 = 114,224원	
항공료	· 왕복(tax, 유류할증료 포함) 2,577,000원	
준비금	· 여행자 보험 13,110원	